

해방기 박인환 시의 인민 이미지 연구

신동옥*

〈차 례〉

- 문제 제기
- 상상공감된 세계대전과 인민 이미지의 현행성
- 불가능한 재현의 과제와 인민 이미지의 비판성
- 전향 '~이후'의 과제

[국문초록]

해방기에 박인환은 비서구적 주체의 현실 인식을 담은 시편을 선보였다. 이 시기의 시편들은 동아시아 전역을 넘나드는 심상지리를 녹여낸다. 그 중핵에는 인민 이미지가 가로놓인다. 박인환의 시에 드러나는 '인민 이미지'는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당위를 표명한다. 박인환의 시적 기획 속에서 경제사회적, 역사정치적 조건에서 근대 국민 국민 국가의 도출을 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이유다. 해방기에 박인환은 문학가 동맹의 소장 전위 시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김기림을 경유하여 '오든 그룹'이 보여준 헤겔 좌파적 사회주의적 신념에 지지를 표명했다. 박인환은 근대적 시공간의 좌표를 '전후'의 파국 속에 정위한다. 상상공감된 공동체 인식은 해방기 박인환이 남긴 시편에서 인민 이미지를 경유한 비판성으로 드러난다. 전향은 이렇게 구축한 인민 주제 기획이 붕쇄되는 생애사적 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 도래할 공동체의 결핍을 노출하는 인민 이미지는 실존적 정체성 물음으로 굴절된다. 해방기 박인환의 시적 기획이 붕쇄되는 지점에서 한국문학사의 알레고리를 읽을 수 있는 이유다.

[주제어] 박인환, 신시론, 해방기, 인민, 민중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문제 제기

근대성과 일상성은 당대를 구성하는 시대정신의 두 축이다. 일상이 무의미의 집합체라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의 기획이다. 이때 발생하는 의미로 인해 한 사회는 사회구성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의미가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한 축이 된다.¹⁾ 거꾸로 말해 일상과 같이 반복되는 요소들을 벗어나는 우연성의 지점에 애초에 그런 그림이 놓친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사적으로 전환하면 이 시기에 나온 세 권의 동인지(김광현 외, 『전위시인집』, 노농사, 1948.10; 박두진 외,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8.6; 김경린 외, 『신시론 1집』, 신시론동인회, 산호장, 1948.4)는 해방 전후의 이음매이자 결절점으로 해석된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신예 전위 시인들이 펴낸 『전위시인집』이 발간된 시점은 1948년 9월 철도 총파업 이후 10월 항쟁과 궤를 같이한다. 분단이 실질적으로 고착되기 시작한 점이다. 이 시집은 사실상 남조선에서 좌익 진영의 공식적인 운동의 몰락을 대변하며, 그 이전 3년의 문학가동맹의 ‘전위 부대’의 현실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은유한다. 이들은 한국 현실주의 시사의 결절점 또는 계승해야 할 지점으로 읽힌다. 『청록집』은 1930년대에 한국 현대시의 출발을 알린 ‘시문학’ 동인의 전통을 해방기로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정지용 이후의 세대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현대로 이어지는 전통서정시의 맥락을 잇는다.

박인환이 해방기에 시단에 등장한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 발표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단층」(『순수시선』, 1946.6.20), 「인천항」(『신조선』 개제 3호, 1947.4.20), 「남풍」(『신천지』 2-6, 1947.7.1), 「사랑의 Parabola」(『새한민보』 11, 1947.10.10),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세계일보』, 1948.1.1),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신천지』 3-2, 1948.2.1.), 「지

1)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과량, 2005, 78쪽.

하실」(『민성』 4-3, 1948.3.1), 「골키-의 밤」(『신시론』 1집, 1948.4.20), 「언덕」(동시)(『자유신문』, 1948.11.25.), 「전원시초」(『부인』 17, 1948.12.15.), 「열차」(『개벽』 81, 1949.3.25), 「정신의 행방을 찾아」(『민성』 5-4, 1949.3.26), 「1950년의 만가」(『경향신문』 1950.5.16). 13편의 시편에 담긴 심상지리는 전역적이며, 주제의 원심력을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경향을 엿보인다.

그러나 한편, 기존의 박인환에 대한 평가는 낭만적 절대에 의해 추동된 초월적 동일성의 미학을 선보인 모더니스트에 방점이 찍혀왔다. 박인환 문학 세계의 전모가 드러난 즈음에는 ‘신시론’ 동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²⁾ 해방기에서 시작되어 한국전쟁기 직후에 끝난 박인환의 시세계의 인식론적인 단절의 계기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며 연구의 관점이 다변화된다. 신시론 동인 시기에 보여주었던 반자본-반봉건주의적인 현실주의 미학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소거되는 연유를 1949년 ‘전향’ 사건에서 찾는 분석이 대표적인 사례다.³⁾

박인환이 ‘마리서사’를 ‘진지’로 문학가 동맹 계열의 지우(知友)들과의 교류, 해방기 『전위시인집』 등을 펴낸 노동사(勞農社)의 총판을 맡은 점⁴⁾ 등 등은 해방기 박인환 시편이 보여주는 ‘혁명적 로맨티시즘’ 미학의 동인으로 지목된다. 제3세계 국가들과의 심정적인 연대⁵⁾를 주제로 한 탈식민주의적

2) 신시론 동인의 형성 및 계편 과정에 대해서는; 엄동섭, 『新詩論 동인연구』, 태영출판사,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엄동섭은 이 연구에서 『신시론 1집』을 발굴, 제시했다.

3) 생애사적 기점으로서의 ‘전향 사건’은 박인환 시의 증증성을 일제 강점기, 해방기, 1950년대 이후의 문학사에서 반복 재현되는 ‘역사적 딜레마’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전향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허준행, 「박인환 문학의 정치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0~54쪽 참조.

4) 정우택은 이중연의 『고서점의 문화사』(혜안, 2007), 192쪽에서 재인용한 『노력인민』 1947년 7월 14일자 기사를 근거로 들어 마리서사의 ‘노동사 총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노동사는 스탈린선집과 인민문고를 기획·출판하면서 해방기 좌익 서적 출판의 선두 역할을 했던 출판사이다. 원래 노동사의 총판은 좌익서적출판협회의 주축인 우리서원이었는데 이 시기에 ‘마리서사’로 바뀌게 되었다. (중략) 이중연은 ‘마리서사’의 폐업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1947년 말 서울에서 대대적인 금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노동사 총판을 맡았던 ‘마리서사’도 압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압수 사건으로 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 한다.”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전향의 반향」,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2.28., 287~322쪽. 인용은 293~294쪽.

5) ‘마리서사’를 축으로 한 박인환의 활동 이력이 몇몇 에필을 넘나드는 예술공동체의 구축에서 나아

인 시야는, 박인환의 공식적인 ‘전향’ 이후,⁶⁾ ‘미국’을 위시한 구라파 문명의 속약함을 폭로하는 양상으로 선회한다는 시각이다.⁷⁾

해방기 박인환이 보여준 고유한 미의식의 생채는 사조적 구분을 수월하게 넘어선다. 그 중핵에 해방기 박인환이 선보인 동아시아 세계의 동시적 현행성에 대한 물음이 가로놓인다. 박인환의 시에서 고통받는 주체의 상호성을 체현하는 희유한 인민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⁸⁾ ‘인민’ 이미지에 대한 섬세한 천착은 박인환의 개별성을 해명할 열쇠다.

박인환에 대한 평가는 ‘현실주의’적 경향 주조로 전회한다.⁹⁾ 동아시아론, 탈식민주의론, 비판적 문화론, 리얼리즘적 증핵론을 경유한 다양한 논의는 근래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연희는 『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표상』에서 박인환을 모더니스트의 범주에서 능동적으로 탈식민적 발화를 선보인 시인으로 초점이동한 바 있다. 해방 이전의 제3세계 인식이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략화된다는 논지다.¹⁰⁾ 박민규는 초기 박인환이 스스로 구축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속에서 문화, 교양을 내면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논리에 균열을

가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연대로 나아간다는 주장은; 송현지, 「박인환 시에 나타난 연대의 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103~137쪽에 자세하다.

- 6) 박인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1949년 7월 16일이었다.
- 7) 박민규는 박인환이 선보인 현실주의적인 경향의 시편이 이 시기에 집중되며, 1947년 8월 좌익 세력에 대한 총검거 선봉 이후 내성적인 경향으로 선회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시적 방향」,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61~97쪽 참조.
- 8) 박인환의 시세계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 성과를 제출한 논자는 최라영이다. 최라영은 ‘불안’을 키워드로 박인환의 시 세계를 푼아 읽었다. 박인환 시에서 불안은 고통 속에서 응시하며 선회하는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기도(企圖)로 나아가며, 연민 속에서 집합적인 주체의 지형도를 가늠하는 시인의 ‘선지자적인 임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친다. - 최라영, 「박인환의 ‘불안’과 ‘시론’의 관련성」, 『한국문학논총』 75, 한국문학회, 2017. 4, 133~163쪽 참조.
- 9) 오문석이 편한 논문집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글누림, 2011의 경우 ‘박인환 시의 현실주의적 성향’을 다룬 분석이 논의의 중점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기 박인환의 시적 전회를 다룬 엄동섭의 「해방기 박인환의 문화적 변모 양상」, 박인환 시의 탈식민주의적 성격과 국제주의적 현실감각을 푼아 읽은 맹문제의 「박인환의 전기 시작품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고찰」과 이기성의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쓰기-박인환의 탈식민주의」, 박인환 지정학적 정치감각과 현실 인식에 주목한 방민호의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과 홍성식의 「박인환 시의 현실 의식과 탈색의 과정」이 그것이다.
- 10) 박연희, 「전후, 실존, 시민표상-청년 모더니스트 박인환의 경우」, 『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표상』, 소명출판, 2020 참조.

가하는 저항 의식을 시화하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논지를 폈다. 모더니스트/리얼리스트의 이항대립을 무화하며 기존의 연구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다.¹¹⁾

박인환이 보여준 문제의식은 비서구적 주체의 자기 인식이 특유의 민중 이미지로 발화된 것으로 재독 가능하다. 박인환의 ‘인민’은 한국문학사의 특수, 구체적 당면 과제로서 ‘반제-반봉건’의 당위와 기술-경제적 자기 생산(박인환의 경우 문화론) 및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과제를 동시에 습합한 이미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분석의 초점은 해방기 박인환이 시화한 ‘인민’에 드러난 ‘민중 이미지’의 분석에 놓인다. 박인환의 시를 낭만적인 모더니즘으로 개척하는 해석은 결과적으로 1954년 한국 전쟁의 최종적인 종전 이후 도래한 일민 민주주의 파시즘, 반공 규율 사회의 논리에 기대어 사후적으로 확증한 해석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정치적 모더니즘이 내장한 ‘동시성’과 ‘현행성’의 문제의식을 보유하면서 ‘자율성’ 논리를 주체의 재건과 관련된 기획으로 굴절하는 전략이 요청되는 지점이다. 근대성에 대한 자기성찰적인 인식을 재현의 자율성 논리에 기대어 발화하는 모더니스트의 인식으로는 ‘미만성의 논리’, ‘뒤늦었음의 자각’을 돌파할 동력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인환이 사유하는 역사정치적 ‘현행성’의 감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다 면밀하게 추적해야 하는 지점이다.

이상의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방기 박인환 시의 ‘인민’ 이미지를 재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논의는 다음을 따른다. 먼저 해방기 시사 기술의 일반론 아래 박인환의 위치 재고한다. 다면적인 문화적, 인적, 지적 교류의 결과로 생산된 이 시기의 작품은 상상공감된 세계대전과 ‘시민-인민’ 이미지의 현행성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결론적으로 박인환의 해방기 시편의 가능성과 한계는 스스로 도해한 도래할 공동체의 결핍을 노출하는 ‘인민’ 이미지의 비판성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 지점이다.

11)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시적 향방」,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8, 97~135쪽.

2. 상상공감된 세계대전과 인민 이미지의 현행성

박인환이 생전에 남긴 단독 시집은 『박인환 선시집』(산호장, 1955.10.15) 한 권이다. 4부로 구성된 이 시집은 해방기 이후 박인환의 작품을 망라했다. 시집 후기를 통해 박인환은 해방기, 한국전쟁기를 겪어낸 문인의 내면의 갈등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해방기 이후의 10여 년은 “세계사가 그러 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였다”는 고백에서 후기는 시작된다. 당대의 파국이 최선의, 최악의 파국이었다는 역사 인식이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사회와 싸웠다.”는 고백은 이 시기 대부분의 문인들이 겪은 ‘전향’ ‘필화’는 물론 국가과 이념을 앞에 두고 강요된 선택의 딜레마를 드러낸 것이다.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의 동요, 본능의 순수와 속악한 체험 사이에 각인된 트라우마는 ‘정조와 신념’의 당위로 쓰일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¹²⁾

박인환은 해방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세계사’와의 연속성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박인환은 1948년 10월 『신천지』의 ‘실존주의 특집’ 기획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는 글을 신는다. 글에서 박인환이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면에 있어서 전쟁이 던져 주는 영향은 제언할 바도 없이 막대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인용하는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다.¹³⁾ 박인환은 다다이즘에서 초현실주의로 이어지는 유럽 예술의 현상적 풍토를 일별하면서 사르트르를 병렬 인용한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대전이 냉전으로 연속되는 사건화 과정에 한국전쟁을 배속하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세계대전의 연속은 한국전쟁의 기점론 가운데 하나다. 이때 해방, 한국전쟁은 상상공감된 파국의 역사가 공동현존재의 실존 체험으로 각인된 역사의 분기점으로 해석될 것이다. 세계대전이 남긴 파국의 알레고리는 모더니즘의 자기 성찰성과 맞닿으며 역사를 현행화하는 계기가 된다. ‘잃어버린 세대

12) 박인환, 「『선시집』 후기」, 『박인환 선시집』, 산호장, 1955.10.15.;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엄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105쪽.

13) 박인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신천지』 3-9호, 1948.10.1.;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엄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24쪽.

[lost generation]'의 미학이 바로 그것이다. 박인환에게 전쟁은 서구의 예술사에서 근대 이후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이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추체됨된 것이다.¹⁴⁾ 파국을 문화의 상수로 공유한다는 인식론적 기제는 상상공감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역사의 한 점으로서 현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전역적인 감각은 해방기 박인환 시 세계에 생채를 부여하는 요인이었다.

절뚝바리 내어머니는/朔風에 쓰러진/枯木옆에서 나를불렀다/얼마지나/부서진 追憶을안고/염소처럼 나는올었다//馬車가 넘어간/언덕에 앉어/地平에서 거러오는/옛사람들의/모습을본다//生覺이 타오르는/연기는/마을을 덮었다

- 「田園詩抄」, 『婦人』 17호, 1948.12.15, 부분.

개고 후에 『박인환 선시집』에 실리는 이 작품은 향토의 애상적인 풍정 사이 사이에 비극적인 내러티브를 고백체로 삽입하면서 전개된다. 평이한 서정 소품으로 읽히는 이 작품은 1949년 신춘 시평에서는 이렇게 평가되기도 한다.

물노니 제군, 바람은 작별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았는가 느꼈는가? 그러나 대답은 제군보다도 재빨리 신시론과의 맹장이요 위대한 책사이며 “풍토의 냄새를 산마루에서 지키는” 요술가 박인환 씨가 하는 것이다. // 우리들은 아직도 풍토의 냄새를 산마루에서 지켜보지 못했고 또한 그런 술법도 배우지 못했거니와 이 신시론과의 시인들은 거리에서 신문을 펴 보면 총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연상가요 초감각의 감각파임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 그러나 그들의 감각은 언제나 한 개의 제한이 있어 신문 속에서 총소리를 듣기는 하나 그 총소리가 어떠한 것인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¹⁵⁾

14) 물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양가주장이 마르크스주의의 독단과 과학적 인과율에 기반을 둔 영역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투쟁하고 반항하는 인간은 필연으로서의 자유를 상황 속에서 선택한다고 말한다.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옮김, 문예출판사, 2013, 27~32쪽, 65~69쪽 참조.

15) 김지월, 「생활의 시(상)」, 『조선중앙일보』, 1949.1.27.

「생활의 시」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김지원은 박인환을 김상훈, 상민, 설정식 등 문학가동맹 ‘전위시인’들이 형상화한 ‘향토 생활’의 모티브와 엮어서 다루고 있다. ‘신시론’ 발간 직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인환에게 부여된 ‘신시론파의 맹장’ ‘위대한 책사’ ‘요술가’라는 에피세트는 이 시기 박인환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박인환과 일군의 문학가동맹 신진 시인을 묶는 공통 분모는 ‘총소리’다. “조국을 지키는 총소리”와 ‘신문 지면에서 울려퍼지는 총소리’의 구분은 전위와 측위 또는 후위의 구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서정 소품에서 ‘생활’과 정치의 전위를 따져묻는 근거는 ‘(공통) 감각’의 확장 가능성에 있을 것이다.

産業銀行 유리窓 밑으로/大陸의 市民이 푸르구나 드하든/지난해 겨울//戰爭을 피해온 女人은/銃소리가 들리지않은 過去를/受胎하며 뛰어들었다.//暴風의 Muse는 燈火管制속에/고요히 잠들고/이 밤 大陸은 한개 果實같이/大理石우에 떠러졌다.//깃뻗힌 나의 優越感이여/시민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Demosthenes/政治의 演出家は 逃亡한 Arlequin을 찾으로 도라다닌다.

- 「斷層」, 『純粹詩選』, 1946.6.20, 부분

‘平行面體’ ‘都市計劃’ 등의 기하학 공학 용어, ‘Cosmos’ ‘Mannequin’ 등의 외국어 표기, ‘부형이’ 등의 시어의 혼재 양상에서 이상(李箱)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Express for Mukden’에서는 스펀터와 김기림의 영향을 동시에 추수할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역시 문명의 불균질적인 발전 양상을 생산과 재생산의 불균형의 층위에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박인환의 일관된 기획을 엿볼 수 있다. ‘프롬나드’ ‘데모스테네스’ ‘아를르캉’ 등의 어사를 통해 ‘정치의 연출’에서 ‘정치의 미학화’ 가능성을 찾는 시인의 갈등의 소재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익명의 여인, 정치의 연출가 등 비지칭의 집합적인 군상들이 전쟁과 일상과 혁명이 뒤얽힌 예외상황 속에 공존하고 있다. ‘단층’이라는 제목은 그 무수한 ‘행위’들 사이에 가로놓인 격자를 가시화한다. ‘단층’은 인민이라

는 집합적인 주체의 출현 상황을 지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인민의 가시화는 재현의 의제와 상관한다. 바디우는 예외상황이라는 국면 속에서 인민은 해방의 정치와 동시에 잠시 가시화되는 부정적인 형상이라고 정의한다. 국민은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는 개념이지만, 인민은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 봉쇄되는 비실존적인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인민은 제국주의, 파시즘의 잔존 속에서 부정적인 내러티브 속에 정위된다. 국가의 합법성과 인민의 비합법성, 비실존성은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모순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제국주의의 동학을 가시화하는 지렛대가 바로 인민이다. 정치적 범주에서 인민은 쇠퇴와 동시에 재구축되어야 할 개념적인 형상이 된다. 이때의 “국가란 우리가 창조하고자 열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이거나 우리가 사라지기를 열망하는 공인된 국가이다.”¹⁶⁾

국가와 국민의 도출이라는 해방기의 과제는 역사정치적 예외상황 속에서 가시화하는 인민이라는 모순적인 개념과의 필연적인 조우를 상징한다. 앞서 살핀대로, 박인환이 일제강점기 말을 거치며 내화한 보편적 문화 교양인의 윤리는 세계대전 이후의 ‘인간’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것이 시학적인 물음으로 해방기 박인환 특유의 포지셔닝으로 이어지는 데는 김기림을 경유한 굴절이 전제된다. 박인환은 이 시기, 김기림의 시적 특장에 대해 “씨는 아직도 무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 시적 구성의 위력(威力)이다. 시정신의 퇴각에 이반하여 『새노래』는 건축에서 보는 몽타주적인 표현을 모 든 시의 요소로 하고 있다.”¹⁷⁾라고 정리한 바 있다. 박인환은 김기림을 통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풍광 속에서 ‘유토피아적인 풍경을 재발견하려는 미학적, 정치적 의제’¹⁸⁾에 골몰하는 술법을 운산한 것일 터이다.¹⁹⁾

16) 알랭 바디우, 「인민이라는 말의 쓰임새에 대한 스물네 개의 노트」,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옮김, 현실문화, 2014, 11~24쪽 참조.

17) 박인환, 「김기림의 시집 『새노래』 평」, 『조선일보』, 1948.7.22.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엄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22쪽.

18) 프레드릭 제임슨, 「모더니즘과 제국주의」,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96쪽.

19) “조선에 있어 참다운 현대 시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상도』 외 몇 시집과 현존하는 몇 시인

김기림은 일찍이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의도와 설계를 감행하는 비판자, 초극자에 의해 열린다’ 그리고 그 출발은 사회주의의 신념조차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현실 반영’에서 출발한다고 진단했다.²⁰⁾ 그러나, 해방기 김기림은 ‘오든 그룹’의 성과가 세계관의 확장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완전히 인민 속에서 쓴 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²¹⁾ 김기림에 따르면 인민의 편에서 쓰는 일은 “인민층에 뿌리박은 새로운 인간성과 보편성을 가진 문화를 처음에는 민족적 규모에서 나중에는 세계적 연관 아래서 세워나가는 획기적인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문화혁명”²²⁾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해방기 박인환은 김기림 읽기를 경유하며 상상공감된 전술로서의 문화운동 진지의 구축에 골몰한다.

軌道우에 鐵의風景을 疾走하면서/그는 野生한新時代의 幸福을 展開한다//
스타-분 · 스펀터-

暴風이 머문 정거장 거기가 出發點/精力과 새로운意欲아래/列車는 움직인다/激動의時間-/꽃의秩序를 버리고/空闊한 나의運命처럼/列車는 떠난다/검은記憶은 田園에 흘러가고/速力은 서슴없이 軸의傾斜를 지난다//青春의복

들의 작품일 것이다. 우리의 자연 발생적(센티멘털) 시와 무시학적(無詩學的) 시의 홍수 속에 끼여 김기림 씨만이 처음으로 새로운 시와 그에 따르는 모든 요소를 혁신 또는 창조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와 가치가 발견된다.” - 박인환, 「김기림 장시 『기상도』 전말」, 『신세대』 4-1호, 1949.1. 25.,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엄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37쪽.

- 20) “영국의 현대시에서는 「엘리어트」의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해서 현실의 반영이 농후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었다. 드디어 30년대에 들어서부터 「뉴우 · 시그내튜어」 · 「뉴우 · 컨트리」에서 출발한 젊은 시인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관심에조차 불만을 품고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전 이후의 영시에 새로운 제2의 변혁을 가져오면서 있지 않은가? 오늘의 문화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의도와 설계를 통해서 내일로 발전할 것이 아닐까? 왜 그러나 하면 언제든지 비판자 · 초극자만이 내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까닭이다.” - 김기림, 「시인으로서 현실에의 적극 관심 2」, 『조선일보』, 1936.1.4. 13면.

- 21) “특히 「신경향」을 근거지로 순노동자의 출신인 「조지 · 오웰」 · 「콕스」 · 「올리 · 골드맨」 등의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등장하였던 것이다. 여기 비한다면 「새 나라」 일파의 「오든」 · 「스펜더」 · 「루이스」 등은 그들의 세계관이 종래의 작가들의 그것을 높이 넘어서 인민의 편에 서기는 했으나 아직도 완전히 인민의 속에 선 것은 아니었다.” - 김기림, 『문학개론』, 신문화연구소, 1947; 『김기림 전집 3』, 김학동, 김세환 편, 심설당, 1988, 70쪽.

- 22) 위의 책, 같은 곳.

받침을/나의 視野에 던진채/未來에의 外接線을 눈부시게 그으며/背景은 핑크 빛 향기로운 對話/깨진 유리창밖 荒廢한都市의 雜音을차고/律動하는 風景으로/滑走하는 列車//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慣習과/封建의터널 特權의帳幕을 뚫고/땀비린 언덕넘어 곧/光線의進路를 따른다/다음 흠뻑 樹木의集團 바람의 呼吸을앓고/눈이 타오르는 처음의 綠地帶/거기엔 우리들의 恍惚한 永遠의거리가 있고/밤이면 列車가 지나온/커다란 苦難과 勞動의 불이 빛난다/彗星보다도/아름다운 새날보담도 밝게

- 「列車」, 『開闢』 81호, 1949.3.25, 전문.

새로운 인간성과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원심적인 운동의 기표는 ‘열차’로 형상화된다. ‘외접선’ ‘지평’과 같은 기하학적인 방향성을 지시하는 일련의 시어들은 그러한 의지를 품은 시적 주체의 시선이 확장하는 동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열차」에서 이러한 주제 의식은 ‘나의 시야에 던져진 미래의 외접선’이라는 표현에 응결되어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들의 관습’ ‘봉건의 터널’을 지나 닿는 ‘커다란 고난과 노동의 불빛’이 혜성보다도 아름다운 새날을 열어젖히리라는 전망은, 1949년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두자면, 불가능하기에 빼아픈 전망으로 다가온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 박인환이 즐기치게 탐색한 경제사회적 보편사, 파국의 끝에 도사리는 유토피아주의 등으로 요약되는 ‘혁명적인 낭만주의’의 정념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 루카치는 1962년 『소설의 이론』 서문에서 ‘반자본주의적 낭만주의’를 유토피아주의의 굴절된 가능성으로 다시 소환한 바 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이 아니라 현재의 결핍 속에서 무차별적인 시간을 정위하는 동력은 바로 ‘반자본주의적’이라는 강제 속에서 현동화되기 때문이다.²³⁾ “유토피아 사상이란 현재의 자기 동일성이 지닌 은밀한 결핍을 현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상이다. 이 결핍의 지점은 실현 가능한

23) 낭만주의와 유토피아의 상관성, 반자본주의적 낭만주의 의제가 품은 유토피아주의의 미학적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탐문으로는; 임철규, 「낭만주의와 유토피아」,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2009, 313-368쪽 참조.

미래가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미래가 현재의 그릇된 충만함에 그늘을 드리워 움푹 꺼지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²⁴⁾

帝國主義의 野蠻의 制裁는/너이뿐만아니라 우리의 侮辱/힘있는/英雄되어
싸워라/自由와 自己保存을 위해서만이 아니고/野慾과 暴壓과 非民主의 植
民政策을 地球에서 부서내기위해/反抗하는 인도네시아人民이여/最後의 한사
람까지 싸워라/ ◇ /慘酷한 멧달이 지나면/피흘린 자바섬(島)에는/붉은 간나꽃
이 피러니/죽임의 보람은 南海의 太陽처럼/朝鮮에서는 우리에게도 빛이러니/
海流가 부디치는 모든 陸地에선/거룩한 인도네시아人民의 來日을 祝福하리라/
◇ /사랑하는 인도네시아人民들이여/古代文化의 大遺蹟 보로·보도울의밤/
平和를 울리는 鐘소리와함께/가메란에 맞추어 스텝피로/새로운 나라를 마지하
여라// “스텝피”-자바의代表舞踊 / (1946.7.26)

-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 『新天地』 3-2호, 1948.2.1, 부분.

해방기 박인환의 시적 기획의 정점에 있는 작품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2차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에 바치는 헌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작품은 1947년 5월 기존 식민본국 네덜란드와 치른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모티프로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박인환이 상상의 영역에서 공감된 세계대전의 ‘잃어버린 세대 의식’²⁵⁾을 모더니즘적인 현행성의 감각을 초월하는 지점까지 밀어붙이며 현실 비판의 동력으로 전유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자칫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지점을 메꾸는 것은 인민들이 ‘스스로 노출하는’ 장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윤리 감각에 있다. 반제-반봉건의 주제는 바로 이 감각적인 만남

24) 테리 이글턴, 「민족주의: 아이러니와 참여」,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47쪽.

25) 거트루드 스타인, 『길 잃은 세대를 위하여』, 권경희 옮김, 오테르, 2006. 를 참조하면 당시의 분위기 읽을 수 있다. 박인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엘리엇의 블룸즈버리 그룹이나, 오든이나 스펀더의 뉴컨트리파는 박인환에게 ‘미적 모더니티’와 ‘사회적(역사적) 모더니티’의 전범이었다. 해방기에는 뉴컨트리파의 ‘사회적 개인’에 참조항을 둔다.

에서 기원한다.

「고르키의 달밤」(『신시론 1집』, 1948.4),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신천지』, 1948.2)에서 드러나는 인민은 식민 이후를 살아내는 인민 주체이다. 박인환의 시에 드러난 고통의 ‘현행성’은 이들이 여전히 역사-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있지만, 해방기에 이르러 이들 인민들은 배제와 박탈의 기제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 양상에 대한 자각이다. 인도네시아와 해방기의 ‘남조선’ 공간이 동일한 지평에서 재현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의 상호성을 마름질하는 민중 주체의 재현과 연관된다. 디다-위베르만은 이때 ‘민중을 드러내기’ 전략의 주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상이한 존재들의 공동체와 상호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공간을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맞붙이는 간극들의 망으로 생각하는 것”²⁶⁾이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해방기 박인환의 시야 속에서 인민의 삶은 극적으로 노출되는 양상을 살펴 읽었다. ‘그 안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계토와 스스로 대적’하는 인민의 삶은 보편사적인 시인의 정념 속에서 시적으로 재현된다. 결과적으로, 박인환의 시에서 인민은 시적 발화의 서정적 기획으로 ‘스스로를 노출하는 민중’인 동시에 시인이 자신의 시선을 의탁하는 ‘민중의 시선이 미치는 권역’이기도 한 것이다.²⁷⁾ 이러한 양상이 바로 해방기 박인환 시에 현동화된 ‘인민 기획’의 가능성이다.

3. 불가능한 재현의 과제와 인민 이미지의 비판성

조르주 디다-위베르만은 ‘인민’과 ‘이미지’라는 단어가 ‘별 가치 없는 것 안에서 과다 재현된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공분모로 거느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베르만은 푸코, 랑시에르 등의 입론을 경유하며 인민들의 재현이 애초에 불가능한 예외상황과 혁명의 국면과 상관한다는 점을 추인한다. 로

26) 조르주 디다-위베르만, 『민중들의 이미지』, 여문주 옮김, 현실문화연구, 2023, 33쪽.

27) 조르주 디다-위베르만, 『민중들의 이미지』, 여문주 옮김, 현실문화연구, 2023, 251쪽 참조.

장발롱의 구분 그대로 ‘의견-인민’, ‘국민-인민’은 배제와 환호의 조작적인 정
의에 의해서 조직된다. 근대적인 인민의 정체성에 포함되지도, 가시화되지
도 않는 감정-인민은 역사에 기입되지 않는 ‘덧없는 그림자’의 형상에 가깝
다. 이 지점에서 위베르만이 문제 삼는 것은 매개와 매체를 경유한 재현의
문제가 아니다.²⁸⁾

『신시론』 1집에 게재한 「시단 시평」을 통해서 박인환은 ‘주관이 명백하
고 유행에서 초탈한 시’ ‘공통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시’ ‘피 흘리며 싸우는
시대 한가운데서 뛰어나온 시’를 진정한 조선의 현대시의 조건으로 제시한
다음 진정한 창조정신의 소재를 인민에서 찾는다.²⁹⁾ 위베르만의 지적을 곁
쳐 읽자면, 박인환은 재현의 무능이나 불능에도 불구하고 현전(presencde)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결여를 감각할 수 있게 만들기’, 바로 그 욕망의 자기
선언의 지점에서 인민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

나는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에 이반된 언
어 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는 지금은 증오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 더
욱 멀리 지난날 노래하였던 식민지의 애가(哀歌)이며 토속의 노래는 이러한 지구
(地區)에 갈았다 간다.

그러나 영원의 일요일이 내 가슴속에 찾아든다. 그러할 때에는 사랑하던 사람
과 시의 산책의 발을 옮겼던 교외의 원시림으로 간다.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
를 즐겼던 시의 원시림으로 간다.

아,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무수한 장미들의 뜨거운 온도.³⁰⁾

28) 조르주 디다-위베르만, 「감각할 수 있게 만들기」,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옮김, 현실문화, 2014, 97~147쪽 참조.

29) “창조 정신이란 곧 인민의 것이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소유임에 틀림없다. 물론 오늘같이 압제 밑
에서 살고 있는 시인들이므로 완전한 시의 기능을 보일 수는 없으나 시의 자유정신의 유통은 이와
는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형상적 생명에 현실적 정신을 부합시키지 못하고서는 처음부터 시를
쓸 자격이 없는 것이다.” - 박인환, 「시단 시평」, 『신시론』 1집, 1948. 4. 20. 『박인환 문학전집 2』,
임동섭, 열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18~19쪽 참조.

30) 「장미의 온도-서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1949. 4. 5, 『박인환 문학전집 2』, 임동섭,
열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39쪽.

‘문명’ ‘자본’이라는 토대의 층위와 ‘식민지의 애가’와 ‘토속의 노래’로 대별되는 과거의 노래를 제약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인환은 이 지점에서 상상으로 공감된 세계대전과 그것이 추동한 당위로서의 미학을 현실의 차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힌트를 얻는다.³¹⁾ 박인환이 꿈꾸는 자유와 개성이 짝트는 ‘시의 원시림’은 가능성과 패착점을 동시에 노출한다. 문제는 상상의 차원에서 공감에 그친 미학이 또다시 ‘중심부의 이론을 변형한 중심부의 억압으로 기능할 때’³²⁾ 생기는 시와 인식의 괴리다. 그러한 괴리를 마름질하며 박인환이 적극적으로 호출하는 시어는 ‘인민’이라는 집합적 주체다.

어제의날개는 忘却속으로갔다/부드러운 소리로 窓을 두들기는햇빛/바람과
 恐怖를넘고/밤에서 맨발로오는 오늘의 사람아//떨리는손으로 안개낀時間을 나
 는직했다/히미한 등불을 던지고/열지못한 가슴의문을 부셨다/새벽처럼 지금 幸
 福하다/周圍의 血液은 사라있는 人間의 眞實로 흐르고/感情의 運河로 漂流하
 든/나의 그림자는 지나간다//내사랑아/너는 찬氣候에서/긴 行路를 시작했다/
 그러므로/暴風雨도 서슴치않고/殘酷마저 무섭지않다//짧은하로 그러나/너와
 나의 사랑의拋物線은/權力없는 地球끝으로-/오늘의 位置의延長線이/노래의
 形式처럼/來日로 自由로운 來日로-

- 「사랑의 Parabola」, 『새한민보』 11호, 1947.10.10, 전문.

회절하는 주체의 시야 속에서 ‘노래의 형식처럼’ ‘자유로운 내일로’ 현실을 이접하는 동력이 태동한다. 이러한 시각은 시작과 끝의 원환을 봉합하면서 새로운 전망의 가능성을 응시하는 집합적 인민의 역사 의식과 상통한다. 문제는 주체 ‘나’의 위치인 셈이다. 이처럼 「사랑의 Parabola」, 「정신의 행방

31) 박인환이 참조로 하는 스펀더와 오든이 말하는 현실 참여는 현실을 ‘직시’하는 개인을 강조한다. - 최병현, 「미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 『미국 현대시-1950년대 이후』, 한신문화사, 1995, viii~xii쪽 참조. 이들과 다르게 엘리엇을 위시한 1세대 영미모더니스트들이 감정으로부터 탈출하여 개체성을 회생하고 비개인성(impersonality, 탈개성)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추상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빠진다.

32) 신승환, 「근대」,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3』, 지식산업사, 2003, 139~140쪽.

을 찾아」 등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민의 형상은 혁명을 다스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갈구하는 적극성을 전면에 드러낸다. 능동적이고 확산적인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사랑의 파라볼라’는 국가정치적 상황의 개별성을 넘어서 공통적인 것을 호명하고, 그렇게 상호적으로 공속하는 연대의 상상력을 가시화한다.

요컨대, 박인환이 가시화하는 민중 이미지는 “내재성과 단절, 침몰의 운동과 프레이밍의 작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이중적 거리의 변증법적 이미지”로 읽힌다. 이때 반근대적인 지배이데올로기는 민중의 몸짓 속에서 가시화된다. “잔존하는 몸짓과 도래하는 공동체가 결핍된 민중을 다함께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민중들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거북이처럼 괴로운 세월이/바다에서 올라온다//일직이 의복을 빼앗긴 土民/
태양없는 마레-너의사람이 白人의 고무園에서/素馨처럼 곱게 시드려 다//민
족의 운명이/꾸멜神의 榮光과함께 사는/안콜, 왓트의나라/越南人民軍/멀리 이
땅에도 들려오는/너이들의 抗爭의 총소리//가슴 부서질듯 南風이분다/季節이
바뀌면 颶風은온다//亞細亞의 모든緯度/잡든 사람이여/귀를 기우려라//눈을
뜨면/南方의 향기가/가난한 가슴팩으로 숨여든다/ (五月)

- 「南風」, 『新朝鮮』 2-6호, 1947.7.1, 전문.

「남풍」은 박인환이 꿈꾸는 연대의 주체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이다. ‘베트남 인민’의 총소리는 남풍이 불어오는 동일한 기후대에 속해 있는 ‘이땅’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온다. 아시아의 모든 위도를 하나의 역사적 전망 아래서 공속하는 것은 계절감으로 은유된다. ‘동일한 위도’라는 표현 속에서 공간화된 현실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불가능한 재현의 압력 속에서 솟구치듯, 인민이 재현되는 ‘출현의 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인민 주권’이라는 정치적인 의제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정리했다. 인민

33) 조르주 디다-위베르만, 『민중들의 이미지』, 여문주 옮김, 현실문화연구, 2023, 288쪽.

은 주권으로 이전되지 않는 비합법적 영역, 행동의 영역에서 구성되는 집단적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민은 ‘우리, 인민’이다. 버틀러의 논의는 연대와 공통성의 의제와 관련된 인민 논의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한다. 첫째, 인민은 구성적 외부를 가진다. 위의 작품에서 토착주의와 아시아주의의 대립에서 읽을 수 있는 바다. 둘째, 인민은 스스로 명명한(self-making) 사회적 다수를 구성하는 언술(ennunciation)이다. 위의 작품에서 ‘남풍’의 은유는 바로 그 언술의 발화 가능성과 겹친다. 셋째, 인민의 자기 선언은 결국 인용이며, ‘인민’이라는 어구는 인용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의 작품의 주제를 반제국주의적 탈식민주의로 고쳐 읽을 수 있는 이유다.

버틀러의 주장은 동의(consensus)와 혁명의 이중 기제 속에서 ‘인민’은 실현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인민의 정치적 자기 실현은 진리의 발화수행적인 행위 속에서 가시화되는 집단성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인민의 재현은 ‘출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을 요구하고, 인민의 신체가 가시화되면서 드러나는 자기 발화의 차원에서 인민은 자기 권리를 담지한 주체로 거듭난다.³⁴⁾ 예컨대, ‘반자본주의적 낭만주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박인환의 시 세계는,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등을 전거로 ‘문학과 행동’ 사이에서 유물변증법적인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모색한 동 시기 카프의 방법론과 상동적이며, 연대의 정동 속에서 주체 나의 확장 가능성을 탐문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시적 음역을 선취한다.³⁵⁾ 박인환은 해방기에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일련의 시학적인 방법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제1차에 있어 인간해방과 세계 재건을 위해 선악, 미추, 가정, 조국, 종교 등의 모든 기존 가치와 교의(敎義)를 파괴하여 문학적으로는 이지와 논리를 배격하고 잠재의식에서 우리나라오는 자동기술(自動記述) 속에서 절대를 탐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은 출발점을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마르크스의 이론과 헤겔 변증법에 두었다.”³⁶⁾ 박인환이

34) 주디스 버틀러, 「우리, 인민-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옮김, 현실문화, 2014, 65~93쪽.

35) 권현주, 「오든그룹과 카프-사회주의사상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0-4, 대한영어영문학회, 2014, 1~19쪽 참조.

주창한 방법론은 보편적 근대성의 주인이 아니라, 인민 형상을 경유한 ‘반제 국주의적 탈식민주의 시인의 사명’에 가깝다.

寫眞雜誌에서 본 香港夜景을 記憶하고있다 그리고 中日戰爭때 上海埠頭를 슬퍼했다//서울에서 三十키로-를 떨어진 땅에 모든 海岸線과 共通된 仁川港이 있다//가난한 朝鮮의인象을 如實히 말하든 仁川港口에는 商館도없고 領事館도없다//따뜻한 黃海의 바람이 生活의 도움이되고저 나푸킨같은 灣內로 뛰어들었다//海外에서 同胞들이 故國을 찾아들때 그들이 처음上陸한 곳이 仁川港이다//그러나 날이 갈수록 銀酒와 阿片과 호콩이 密船에 실려오고 太平洋을 건너 貿易風을탄 七面鳥가 仁川港으로 羅針을 돌린다//서울에서 모여든 謀利輩는 中國서온 혈벗은 同胞의 보따리 같이 貨幣의 큰 몽치를 등지고 埠頭를 彷徨했다 //웬사람이 이같이 많이 걸어나는 것이냐 船夫들인가 아니 담배를 살라고 軍服과 담요와 또는 캔디를 살라고-그렇지만 食料品만은 七面鳥와함께 配給을 한다//밤이 가까울수록 星條旗가 퍼덕이는 宿舎와 駐屯所의 네온·싸인은 붉고 잔그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유니온·잭크가 날리는 植民地 香港의 夜景을 닮아 간다 朝鮮의海港仁川의 埠頭가 中日戰爭때 日本이 支配했든 上海의밤을 소리 없이 닮아간다.

- 「仁川港」, 『新朝鮮』 개제3호, 1947.4.20, 전문.

시에서 묘사한 다인종의 심상지리는 배인철의 「흑인부대」 등의 작품과의 연관을 짐작케 한다. 「인천항」에서 홍콩의 야경과 가난한 조선의 풍경이 중첩된다. 인천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의 지배지였던 상해와 겹치고, 거기에 걸린 성조기는 제국에 의해 유폐된 욕망의 동학을 투과해 도회의 불빛 이미지와 겹친다. 식민과 반식민의 기억이 동시에 교차하는 인천으로 상처받은 ‘동포’들이 도래한다. 인천이라는 역사정치적 장소성을 빼어나게 형상화한 작품에서 ‘동포’로 표상되는 인민은 그러한 역사의 바깥으로 배제되는 동시

36) 박인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신천지』 3-9호, 1948.10.1.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염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24쪽.

에, 배제됨으로써 삶정치적 사건에 포함되는 현실적 비참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인천, 상해, 홍콩은 근대성과 식민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교차되며 미래의 인민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계기에 대한 물음을 일깨운다. 식민성이 없는 근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그것이다. “근대성, 식민성, 인종주의라는 세 개의 항이 각각 서로에게 필수적인 지지대로 복무하면서 하나의 복합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³⁷⁾

에드워드 사이드는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를 ‘반제국주의적 탈식민주의의 시인’으로 재해석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의 기치가 저항문화의 거점이었다면, 제3세계에서 신생독립국들이 태동하던 시기부터는 ‘해방주의적인 반제국주의적 저항’이 중요 의제가 된다. 제국의 역사 이후의 ‘반제국주의’ 의제는 탈식민화를 통한 독립의 쟁취라는 목표를 향해 정위되기 때문이다. 제국의 역사가 지나간 국토의 형상은 ‘탈취된 채로 다시 생겨난 자연’이라는 의미에서 ‘현재적인 박탈’에 대한 재인식을 추동한다. 언어, 주체의 측면에서 식민자의 언어와 주체를 경유한 번역을 이 중으로 굴절해서 성립되는 식민지적 곤경의 문제를 낳는다. ‘민족주의적 심성, 또는 토착주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흔적, 위계를 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이드는 예이츠의 시에서 두 가지 형상으로 재현된 ‘우리, 인민’을 읽는다. 첫째는, 이상적인 측면에서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둘째는, 적에 대한 의식에 의해 구체화되는 공동체다. 전자가 유토피아주의와 상관한다면, 후자는 혁명의 논리와 상관한다. 침묵하고 있는 민중적인 것에 내재한 기원적인 힘에서 끌어낸 시인의 소명은 ‘민중과 시인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가시화된다. 이는 식민자의 규약을 해방의 내러티브로 전복하는 형질 변경에 가까울 것이다.³⁸⁾

혁명의 내러티브, 유토피아주의, 그것을 언술 차원에서 실현하는 인민과 시인 사이의 약속은 해방기 박인환 시의 생채였다. 지금까지 살폈듯, 해방기

37)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 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123쪽.

38) 에드워드 W. 사이드, 「예이츠와 탈식민화」,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115-158쪽 참조.

박인환이 보여준 인민 이미지는 식민 근대성이 매끈하게 마름질한 ‘정체성-소유-주권’이라는 지배적인 담론을 ‘특이성-공통적인 것-혁명의 가능성’으로 초점이동하는 역사정치적 상상력의 일례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³⁹⁾

4. 전향 ‘~이후’의 과제

1946년 6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강제된 ‘사상 전향’의 경향성은 같은 시기에 공표된 ‘전향선언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⁴⁰⁾ 박인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향은 박인환이 스스로 구축한 세계와 인민 주체를 변주하는 계기가 된 생애사적 사건이다. 이 시점은 초기 박인환 문학의 거점이었던 ‘마리서사’ 정리 직후이고, 한국전쟁 직전이며, 이후 방미(訪美) 체험 직전이기도 하다. 마리서사 폐쇄는 비판적 담화의 근거였던 ‘진지’의 회수에 대응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인민’ 세계의 역동성에서 초월적이고 획일적인 질서를 내면화한 보편적 ‘문화 시민’으로의 변모에 대응한다.

박인환의 시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건은 전향⁴¹⁾이었다. 전향 이후 박

39)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 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471쪽.

40) “해방 후 혼란기의 무의식 중 남로당에 가입하였으나 본의않임으로 탈당하는 동시 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을 맹서함 - 단기 4282년 10월 1일” 김정준, 「성명서」, 『자유신문』, 1949.10.2; “해방 후 혼란기에 여성동맹에 가입하였다가 5. 10 선거에 탈퇴하고 그후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고있음을 성명함 - 단기 4282년 10월 1일” 이금준, 「탈당성명서」, 『자유신문』, 1949.10.2; “본인은 해방 후 혼란기 남로당에 가입하였으나 그로선이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임으로 탈당하는 동시 금후는 대한민국에 충성함을 성명함” 박동현, 「탈당성명서」, 『자유신문』, 1949.12.4; “본인은 해방 후 무지한 소치로 남로당 측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당하였던 바 기 후 남로당은 살인 방화 파괴 등 반민족적이오 반국가적임을 자각하고 동당과의 연계 일절을 끊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서하는 동시에 재차 탈당을 성명함. 단기 4282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 7의 16 이인구” 이인구, 「탈당성명서」, 『자유신문』, 1949.12.4. 등등.

41) “본인 등이 해방 직후 가맹한 『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계열에서 탈퇴하는 동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자(玆)에 서명함 - 단기 4282년 9월 20일” 임호권, 박영준, 박인환, 이봉구, 「성명서」, 『자유신문』, 1949.10.2.

“해방 후 본인이 가맹한 문학가동맹을 비롯한 좌익 계열에서 탈퇴한 지는 이미 오래이나 일반의 의혹이 있으므로 재차 탈퇴함을 성명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서함. 단기 4282년

인환은 보도 연맹 '문화실'에 소속되었고, 1950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국민예술제전'에 참여하여 설정식, 정지용, 김상훈, 임호권, 김병욱, 여상현 등과 시를 낭송한다.⁴²⁾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49년 6월 발족한 '국민보도연맹'의 운영지침과 상관한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전향을 표명한 문필가들은 ① 집필 금지(1949.11~1950.2), ② 원고 심사제(1950.2), ③ 원고 사전검열(1950.4) 같은 제약을 받았다." 설정식의 경우 보도연맹 가입 이후 기관지 『애국자』에 「붉은 군대는 물러가라」를 발표했지만 좌우익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활동을 이어갔다. 보도연맹의 가입이 '실제'의 전향 유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⁴³⁾ '전향'은 문학적 발화의 복화술을 '중층 결정'하는 압력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하지만 쓰루미 슌스케가 정리한 대로 전향에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강제'와 '내면의 신념의 변화'가 동시에 추진된다는 것이 문제다.⁴⁴⁾ 전향자의 내면의식이 '이후'의 행로에 다층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이후 술한 문인들의 다양한 행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전향자의 내면은 '전향공간'의 수립을 둘러싼 갈등의 형식으로 작품 세계에 압력을 행사한다.

나의生涯에 흐르는 時間들/가느란 一年의 안제라스//어두워지면 길목에서
우렸다/사랑하는 사람과//숲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그의얼굴은 죽은 詩人이었
다//늪은언덕밑/疲勞한季節과 부서진樂器//모이면 지낸날을 이야기한다/누구
나 저만이슬프다고//가난을등지고 노래도읽은/안개속으로 드러간 사람아//이
렇게 밝은밤이면/빛나든 樹木이 그림다//바람이 찾아와 문은열리고/찬눈은 가
슴에 떨어지다//힘없이 反抗하든 나는/겨울이라 떠나지 못하겠다//밤새우는 街
路燈/무엇을 기다리나//나도 서있다/無限한 果實만먹고

- 「나의 生涯에 흐르는 時間들」, 『世界日報』, 1948.1.1, 전문.

11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5 박인환" 박인환, 「성명서」, 『자유신문』, 1949.12.4.

42) 조은정, '4.2.2. '전향성명서'의 언어와 문학자의 전향',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박사논문, 2018, 185~202쪽 참조.

43) 김옥동, 『설정식, 분노의 문학』, 삼인, 2023, 77쪽 참조.

44) 쓰루미 슌스케, 『전향』, 최영호 옮김, 논형, 2005, 33쪽.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은 종종 전향기 박인환의 내면을 ‘예상표절’ 형태로 그린 작품으로 지목되고는 한다.⁴⁵⁾ 작품의 모두(冒頭)에서 ‘나의 생애사’를 ‘안젤루스’ 즉 삼종기도의 시간과 은유하고 있다. 평화와 구원의 기도가 지배하는 시간이 ‘생애사’를 수놓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피로한 계절과 부서진 악기’를 쥐고 지난날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슬퍼하는 시인 자신의 모습은 깊은 숲속에 버려진 채 ‘죽은 시인’의 형상과 겹친다. “나는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시민 정신에 離反된 언어 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는 지금은 증오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난날 노래하였던 식민지의 애가이며 토속의 노래는 이러한 地區에 가라앉아 간다.”⁴⁶⁾ ‘식민지의 애가 VS 자본의 군대에 대한 증오의 노래’의 대비가 추동하는 갈등이 이 시에서는 작자로서의 시인 자신의 ‘임사 체험’으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950년을 기점으로 박인환이 ‘인민 기획’을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이봉래, 김규동, 박인환과 함께 ‘후반기’ 동인을 결성한 조항은 박인환의 전향 즈음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 “아무래도 극히 無能한 싸롱 말크시스트의 典型으로 박엔 안 보이는 唯物象牙塔의 主人公 薛貞植 金東錫氏따위가 그 조금 가진 재주의 굴택으로 文學家同盟의 重鎮席에서 수째 에헴! 을 뽐내고 있는 고락서니들이란 웃지 못할 喜劇이 아니고 무어랴?”⁴⁷⁾ 후반기 동인의 역학관계 이념 지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시기 박인환이 조항의 견해에 동의했을지는 미지수다. 박인환의 전향은 냉전체제를 통치질서로 전유한 국가장치의 특성을 보여준다. 조희연이 ‘반공규율사회(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로 명명한 기제다. 반제국주의적 탈식민주주의의 의제는 당면한, 초래된 ‘내전-분단’이라는 예외상황 속에서 봉쇄될 것이었다. 조

45) 박민규의 견해가 대표적인 경우다.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시적 방향」,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97-135쪽 참조.

46) 「장미의 온도-서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1949.4.5.,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엄철, 김낙현 엮음, 소명출판, 2020, 39쪽.

47) 조항, 「文壇안데판당風景」, 『해동공론』 5-1, 1950.1, 18쪽.; 홍래성, 「조항의 초현실주의 시론의 발현과정과 특질에 대하여」, 『인문논총』 7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8, 298-299쪽 재인용.

희연은 모든 역사적인 경험을 봉쇄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상적인 국민적인 의사합의(pseudo-consensus)’로 내재화하며 ‘동질적인 극우 공동체’가 도래한다고 정리했다.⁴⁸⁾ 박인환이 가상의 의사합의 아래 인민이라는 복수의 이질적인 공동체 논리를 단일한 공동체 논리로 ‘전향’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다.⁴⁹⁾

2차 세계대전의 연장으로서의 한국전쟁의 바로 그 ‘전쟁’은 한국문학의 영역 안에서 완성해야 할 미래의 시점으로 근대 국민 국가의 문학이라는 목적론적인 지점을 영원히 유예한다는 의미에서 근대성의 딜레마와 상통한다. 전쟁의 폭력을 겪는 주체는 ‘식민지적 타자’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실현된 작품으로서의 문학사와 관계하는 직접경험도 아니고 관념적인 지대로 분할된 문학사와 관계하는 간접경험도 아닌 외상으로 재현된다. 해방기에 박인환이 천착한 ‘반제-반봉건’의 테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의 과제를 겨냥한다. 식민적 언어화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삶정치의 당위를 현성하는 것,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민의 삶을 공적 영역의 삶 내부로 복권시키는 문화정치적 과제가 그것이다.

해방기에 열렬한 문화 기획자, 저널리스트, 시인으로 활동했던 박인환의 시야는 당대가 품은 아포리아의 핵심을 재현하는데 골몰했다. 역사유물론, 결정론, 지배체제의 파국으로서의 ‘세계대전’은 발화의 권리가 봉쇄된 존재들을 공격한다. 반근대성에 대한 자기 성찰에 기반한 대안근대성이 요청되는 국면이다. 들뢰즈는 “집단적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중을 긍정하는 것, 그 포텐셜 또는 긍정적 권력의지를 정의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운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체 또는 민중”의 “잠재성 또는 힘들의 잠재력 배양”을 과제로 요청한다. 인민은 잠재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힘이라는

48)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89쪽.

49) 앞서 적시했듯, 전향의 논리는 굴절의 기제를 경유한다.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첫째, 1950년대 박인환의 시편을 동 시기에 박인환이 전개한 매체 평론의 행간과 겹쳐 읽는 독법으로 해방기 박인환의 인민 기획의 ‘굴절 여부’를 가늠하는 방법, 둘째, 김수영이 그러했듯 박인환이 1960년 4월 혁명을 체험했다는 전제 아래, 1950년대의 작업을 유예된 해방기 담론과 4월 혁명의 예상표절 사이에 정위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가정 모두 ‘전향’을 전제로 한 굴절 논리 아래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측면에서 정동적인 존재 양상을 띤다.⁵⁰⁾ 해방기, 박인환이 인도네시아, 상해, 홍콩, 인천의 ‘인민’이 같은 지평에서 사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상공감된 세계대전 이후 ‘행방불명 상태’였던 인민을 가시화하는 과제에 골몰한 결과였던 것이다.

50) 데이비드 노먼 로도위, 『질 들뢰즈의 시간 기계』, 김지훈 옮김, 그린비, 2005, 300쪽, 302쪽.

■ 참고문헌

- 『신시론 1집』, 신시론동인회, 산호장, 1948.4(엄동섭, 『신시론 동인 연구』, 태영출판사, 2007).
-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김경린 외, 도시문화사, 1949.4.5.
- 『박인환 선시집』, 산호장, 1955.10.15.
- 『박인환 문학전집 1』, 엄동섭, 엄철 위음, 소명출판, 2020.
- 『박인환 문학전집 2』, 엄동섭, 엄철, 김낙현 위음, 소명출판, 2020.
- 『자유신문』, 『경향신문』, 『조선중앙일보』, 『부인』.
- 권현주, 「오든그룹과 카프-사회주의사상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0-4, 대한영어영문학회, 2014, 1-19쪽.
- 김기림, 「시인으로서 현실에의 적극 관심 2」, 『조선일보』, 1936.1.4.
- _____, 『김기림 전집 3』, 김학동, 김세환 편, 심설당, 1988.
- 김옥동, 『설정식, 분노의 문학』, 삼인, 2023.
- 김지원, 「생활의 시(상)」, 『조선중앙일보』, 1949.1.27.
- 맹문재, 「박인환의 전기 시작품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 고찰」,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오문석 편, 글누리, 2011.
-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지적 항방」,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학회, 2018, 97-135쪽.
- 박연희, 「전후, 실존, 시민표상-청년 모더니스트 박인환의 경우」, 『제3세계의 기역: 민족문학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표상』, 소명출판, 2020.
-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오문석 편, 글누리, 2011.
- 송현지, 「박인환 시에 나타난 연대 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103-137쪽.
- 신승환, 「근대」, 우리사상연구소 위음, 『우리말 철학사전 3』, 지식산업사, 2003.
- 엄동섭, 『新詩論 동인연구』, 태영출판사, 2007.
- 이기성, 「제국의 시선을 횡단하는 시쓰기-박인환의 탈식민주의」,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오문석 편, 글누리, 2011.
- 임철규, 「낭만주의와 유토피아」,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2009.
-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전향의 반향」,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2.28, 287-322쪽.
-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박사논문, 2018.
-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 최라영, 「박인환의 '불안'과 '시론'의 관련성」, 『한국문학논총』 75, 한국문화회, 2017.4, 133-163쪽.
- 최병현, 「미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 『미국 현대시-1950년대 이후』, 한신문화사, 1995.
- 허준행, 「박인환 문학의 정치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0-54쪽.
- 홍래성, 「조항의 초현실주의 시론의 발현과정과 특질에 대하여」, 『인문논총』 7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8, 298-299쪽.

홍성식, 「박인환 시의 현실의식과 탈색의 과정」, 『박인환-위대한 반항과 우울한 실존』, 오문석 편, 글누림, 2011.

거트루드 스타인, 『길 잃은 세대를 위하여』, 권경희 옮김, 오테르, 2006.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질 들뢰즈의 시간 기계』, 김지훈 옮김, 그린비, 2005.

쓰루미 슌스케, 『전향』, 최영호 옮김, 논형, 2005.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 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알랭 바디우, 「‘인민’이라는 말의 쓰임새에 대한 스물네 개의 노트」,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옮김, 현실문화, 2014.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 2005.

에드워드 W. 사이드, 「에이츠와 탈식민화」,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장 폴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곤 옮김, 문예출판사, 2013.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감각할 수 있게 만들기」,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옮김, 현실문화, 2014.

_____, 『민중들의 이미지』, 여문주 옮김, 현실문화연구, 2023.

주디스 버틀러, 「우리, 인민-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인민이란 무엇인가』, 서용순 옮김, 현실문화, 2014.

테리 이글턴, 「민족주의: 아이러니와 참여」,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프레드릭 제임슨, 「모더니즘과 제국주의」,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김준환 옮김, 인간사랑, 2011.

A Study on People's Image in Park In-hwan's Poetr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Shin, Dong-ok*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Park's poetry reflected the perception of reality by non-Western subjects. The poems of this period incorporate a mental geography that spans across East Asia. At its center is the image of the people. The 'people's image' in Park's poems expresses an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ist stance. This is why we can read in Park's poetic project the will to derive a modern nation-state from the economic, social, and historical-political condition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Park In-hwan established a network with the small group of avant-garde poets of the 'Joseon Literary Alliance', and expressed support for the Hegelian leftist socialist beliefs of the Odden Group through Kim Ki-rim. Park anchors the coordinates of modern time and space in the catastrophe of the 'postwar' period. The imagined sense of community is manifested in Park's poetry from the liberation period as a criticality through the image of the people. The conversion was a life-historical event in which the people's project of self-determination was sealed off. The people's image, which exposes the deficiency of the community to come, shifts to the question of existential identity. This is why we can read the allegory of Korean literary history at the point where Park In-hwan's poetic project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s distorted.

Key words : Park In-hwan, Sinshiron, The Liberation Period, People(人民), Minjung(民衆).

논문투고일 : 2024년 10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1월 20일

*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